



남원동부노인복지관, 관절 튼튼 라인댄스 운영

남원동부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주 2회 관절튼튼 라인댄스(line danc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라인댄스(line dance)는 최근 유행하는 것으로 여러 명이 하나 이상의 라인(line)에서 같은 움직임으로 동시에 시작하고, 같은 스텝(step)으로 추는 춤이며, 미국에서는 카우보이 댄스(cowboy dance) 또는 웨스턴 댄스(western dance), 컨트리 댄스(country dance)로 불리며, 건강 댄스(dance)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적당한 빠르기로 걷는 속도를 유지하고, 인구가 단순하고 쉬워 성별 및 나이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에게 호응이 좋고 근력과 유산소 운동 2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운동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금동 복지기동대, 취약 가구 주거환경개선

남원시 금동 맞춤형복지팀(팀장 정하을)은 동 복지기동대가 13일 지역 내 취약 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청장년 1인 가구 대상은 근로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혼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처지로, 복지기동대가 도배와 장판 및 싱크대 교체지원에 나서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다. 올해 새롭게 조직된 금동 복지기동대는 사회취약계층의 소액 긴급수리, 주거개선, 안전점검 등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영노 복지장은 "한명의 작은 힘이 모여 큰 힘을 내는 게 복지기동대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군, 경력단절여성들 위한 직업교육훈련 운영

무주군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오피스행정사무원양성교육과정 개강식을 개최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시작한다. 직업교육훈련은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무주군 무주여성센터 3층 전산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무주군에 거주하며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이거나 취업의사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교육생 15명을 선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봉트리 봉사단 쟁거루 앞치마 만들어 전달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는 13일 무주봉트리봉사단 시니어 사회활동으로 폐현수막 활용 쟁거루 앞치마 50장과 일반작업용 앞치마 20장을 서면마을의 2개마을에 전달하였다. 이 사업은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시니어 사회활동 사업으로 시니어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기여를 통하여 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무주봉트리봉사단은 평소 재봉틀에 관심 있는 동아리로 박숙희회장이 회원 13명이 재봉틀을 활용하여 전통의상과 소품들을 제작 홍보하는 단체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8회 전국장애인가요제 성료

대상 이경식, 최우수상 안진유, 우수상 이종완·윤석주씨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WBC 복지TV 전북방송이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가 주관하는 '제18회 전국장애인가요제'가 지난 11일 오후 전주 풍남문화광장서 열렸다.

전국장애인가요제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후원하고 태영기술공사, 행복드림복지회, 백송화관, 대건신협, 플러스건설이 협찬했다.

이날 행사에서 장성태 가요제 제2위원장,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최주만·이남숙·전서영·장재희·이보순·박선진 전주시의회 의원, 김시우 행복드림복지회장, 이영재 전주시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 황금석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이사, 김태권 복지TV 전북방송대표와 장애인 단체장들, 장애인 300여명 등이 참석했다.

13명의 대회 참가자들은 무대 위에 올라 자신의 기량을 발휘했다.

이번 대회의 대상의 영광은 이경식(전남 목포)씨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에 안진유(군산)씨, 우수상에 이종완(완주)·윤석주(전주)씨가 선정됐다.



이어 박태경(경북 구미)·백정규(남원)씨가 우수상을 서화순(전주)·이미희(전주)씨가 장려상을 수상받았으며, 김정은(전주)·전성일(전주)씨가 인기상, 금순욱(남원)·김병석(익산)씨가 특별상을 수상받았다. 김수정(전주)씨는 도전상을 수상받았다.

대회와 함께 진행된 주요 공로자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대회와 함께 도지사 표창을 박은희씨가 교육감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김민주씨가 도의회 의장 표창 정영수씨가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송이씨는 전주시시장 표창을 가수 이수정씨는 가요제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개교 60주년 기념 캠퍼스 자연보호 행사

전주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200여 명이 지난 10일 대학 캠퍼스에서 ESG캠페인 캠퍼스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개교 60주년을 기념해 ESG 경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ESG 캠페인 활동은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ESG 참여 장려를 위한 SNS 게시 운동,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하기, △계단에용을 통한 생활 속 운동 △적정 냉난방 온도 유지하기 등이 있다.

박진배 총장은 "ESG 경영의 핵심과제인 2050 탄소중립 추진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교 60주년을 맞아 자원순환과 깨끗한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적극행정 국민신청 직원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국민신청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행정 국민신청팀 이승만 강사를 초청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개념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는 지금까지 정부 중심으로만 추진됐던 적극행정에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 현장에서 직접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전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통행 안전, 대중교통, 재난 보건복지, 환경 등 10가지 분야에서 신청된 다양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례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찬준 부시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을 직접적인 정책개선의 주체로 포함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서, 국민을 정책의 건의자에서 나아가 정책의 결정자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경영기술지도사회·산학융합원, 도내 중기 발전 협력 강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와 (사)전북산학융합원은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협력이 실현된 결과물로,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전북지회장과 전북산학융합원 원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역량을 결합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확산 △M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및 훈련참여 지원, △산학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혁신을 지원 △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약정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형권 전북특별자치도 지회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기관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지역 내 중소기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전북지회장은 보고 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지역 산업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전북산학융합원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외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컨설팅, 현장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리그 4연승 질주... 원정서 평택에 3대2 승

전주시민축구단이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리그 4연승을 달렸다.

전주는 지난 11일 광택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열린 2024 K4리그 8라운드 광택시티FC와 원정경기에서 조민호와 박근배의 골로 3대 2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전주는 올 시즌 첫 리그 4연승을 기록하며, 승점 15점(4승1무1패)으로 리그 2위로 올라섰다.

경기 초반 전주는 장거리 원정으로 불안한 출발을 보이며, 평택에게 전반 26분에 골을 허용, 1대 0으로 끌려갔다. 이후 전주는 전열을 정비하고 득점을 위해 전방에서 김도형과 박근배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기회를 찾았다.

기대한 골은 전반 40분에 나왔다. 김도형이 상대 진영 오른쪽에서 패스한 공이 상대 수비에 맞고 호르가 조민호가 참작하게 상대 골문에 밀어 넣어 동점을 만들었다.

전주는 전반 43분에 상대의 자책골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전반을 2대 1로 앞선 가운데 마쳤다.

후반 시작과 함께 양 팀은 골을 기록하기 위해 선수들을 대거 교체했다.

양팀의 공방전끝에 전주의 추가골이 후반 7분에 나왔다. 박근배의 헤딩슛이 상대 골키퍼 손에 맞고 나온 공을 재차 오른쪽 슛으로 골문을 갈랐다.



전주는 앞선 상황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후반 15분 상대에게 골을 허용했지만 더 이상 실점하지 않고 3대 2로 경기를 마쳤다.

양영철 감독은 "이날 승리로 선두권에 안착하게 됐다"면서 "원정경기까지 응원 나온 서포터즈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오는 26일 전주대운동장에서 2024 K4리그 9라운드 서울중앙축구클럽과 홈경기를 갖는다. /정은성 기자



무주읍의용소방대, 짜장면봉사단 순회봉사 전개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별 자생봉사단의 자발적인 활동과 활성화 기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역사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주읍의용소방대(김용찬 유일욱 대장) 짜장면봉사단은 중화요리 업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매월 1회씩 순회 방문하여 15여명의 봉사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짜장면 및 군민들을 조리하여 배식하고 있으며 무주119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응급처치 및 안전교육을 22년도부터 매년 주관하고 있다.

24년에는 작심면 산코비를 순회와 함께 화장실 안전바 및 미끄럼틀 설치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바 설치 부분은 의소대 외에도 관내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봉사자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영석)는 지역맞춤형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지역사회 개발·발전, 소외계층 인권신장, 안전문화, 환경보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성있게 지원하여 자원봉사분야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용찬 대장은 "대원들의 의지와 지역소외계층을 위하고 자 하는 작은 마을들이 모여 재능을 기부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김제시체육회, 김제시장기 읍면동대항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9개 읍면동 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회 김제시장기 읍면동대항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열렸다.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최하고 김제시체육회가 주관한 이번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지난 10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내·외빈과 함께 19개 읍면동의 65세 이상 어르신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전 고리걸기 투호 종목, 오후 한궁경기 및 시상식을 진행했다. 종합 1위 요촌동 체육회, 2위 백구면 체육회, 3위 응지면 체육회, 청하면 체육회가 공동 수상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족사랑요양병원의 의료봉사 지원으로 안전한 행사로 치러졌다. 코로나 이후 5년만에 개최하는 대회만큼 어르신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유승 김제시체육회장은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며 이 대회를 계기로 각 읍면동 체육회가 더욱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